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 거래일대비 3.10원 하락한 1,191.30원에 마감

31일 달러-원 환율은 사상 최악의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GDP)에 따른 미달러화 약세 영향에 하락 출발하여 장중 변동폭이 제한되어 움직이다가 전 거래일 대비 3.10원 하락한 1,191.30원에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전 거래일 대비 5.90원 내린 1,188.50원에 개장하였다. 개장 이후 환율은 하락 출발하였으나, 오후에는 장중 1,188원대~1,190원대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하다가 1,191.30원에 마감하였다. 시장 평균환율은 1,189.10원에 고시되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원 재정환율은 1,141.39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88.50	1191.50	1186.60	1191.30	1189.1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36.36	1142.17	1125.60	1126.42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4	-1.31	-2.96	-6.22
	결제환율(수입)	0.16	0.22	-0.23	-1.26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 전망	글로벌 달러 강세 전환에 ..1,190원대 중반 등락 예상
-------	----------------------------------

금일 달러-원 환율은 미중 외교적 갈등이 지속되고 결제수요와 저가매수 수요가 하단을 지지하는 가운데 미국 달러 강세 전환의 영향으로 1,190원대 중반 등락이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0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91.30원) 대비 3.15원 상승한 1,194.40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미중 긴장 속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과 본격 휴가철에 따른 달러 공급 우위 약화,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입세 지속 등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 증시에는 애플을 포함한 기술주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재를 보이자 기술주로 자금이 몰리는 위험자산 선호가 보이고 안전 통화인 엔과 스위스 프랑이 하락하여 환율은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 추가 부양책 합의 지연, 대통령 선거 연기 가능성 등으로 미국 사회 전반의 경제 및 정치 불확실성이 커져 환
율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92.00 ~ 1198.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56.28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15원 ↑
	■ 美 다우지수 : 26428.32, +114.67p(+0.4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7.8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886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